



# 08

# 대외 협력

## 1. 코로나19 사태 전북 대외협력부문 현황

이동기 선임연구위원\_사회문화연구부  
이주연 연구위원\_여성정책연구소

### 코로나19 사태 개요

코로나19로 투명성, 개방성, 신속성, 민주성 등을 갖춘 우리나라 방역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모델이 세계 방역의 표준이자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고 전 세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의료·보건·방역 전반에 대한 국제적 공조체계를 구축하려고 국제적 협력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전라북도도 우수방역 정책과 경험을 자산으로 국제교류 분야를 의료·보건·방역 등으로 확대하여 국제 교류 협력을 주도하고 전라북도의 기업·인력을 해외로 진출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코로나19의 완벽한 대응은 정부 주도차원의 방역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민간 기업과 단체는 물론 개개인의 시민의식 및 위생관리 노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에 나와 너, 우리, 단체, 기관과 자치단체와 국가가 함께 극복하고자 스스로가 방역 주체로 참여하여 서로를 배려하고 살피고 돌볼 수 있는 가치의식이 필요하다.

### 코로나19 대외협력부문 전북지역 현황

#### 국제 교류 협력

전라북도는 국제교류센터와 민간기관을 통해 인적·문화적 다양한 국제 교류 활동과 국민의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국가들은 감염 방지를 위해 국가 간 입출국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지방정부 중심의 국제교류 활동이 중지되거나 무기한 지연되면서 국제 협력관계 유지와 신뢰에 큰 타격을 입었다.

전라북도도는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자매우호지역과의 국제 행사 및 문화 교류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이 추진 될 것으로 전망하나 코로나19 사태 진정이 우려했던 것보다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이 실천되면서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대상 집합교육과 면대면 지원서비스가 중지·연기되거나 온라인교육이나 비대면 형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2월 23일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일시 휴관했었고, 이로 인해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족에게 지원해왔던 한국어 집합 및 방문교육, 상담지원, 다문화자녀생활서비스, 결혼이주여성의 모국 방문사업 등이 전면 중지되었었다. 특히 한국어에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은 코로나19 감염발생 현황 및 방역대응정책(마스크 전달, 초·중·고 온라인개학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지 못해 어려움과 혼란을 겪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방역관리 및 감염예방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돌봄을 필요로 했다.

## 민간 협력·교류

민간 협력 및 교류 활동은 전라북도의 위상을 확보하는데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민간 협력·교류 강화는 중요하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지역사회로 확산·전파되는 것을 막고 확산 속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람간의 민간 교류 및 행사 활동을 제한시키고 사람들도 민간 교류와 참여를 꺼려하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의 각종 민간 협력·교류 행사와 활동이 잇달아 잠정 연기·중단되었고, 타 지역의 출향 도민들의 역량 결집을 위한 전북도민회 추가 신규 발족 등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민간협력 및 교류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나 그 추진 방식을 비대면·소그룹 중심으로 전환하여 교류와 협력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 자원봉사

코로나19 사태라는 재난발생으로 전북 각지에서 분야별 자원봉사자를 요청하였고, 예방에서 방역까지 다차원적 측면에서 자원봉사자의 손길을 필요로 했음에도 감염병 관련 방역물품 부족으로 원활한 자원봉사 운영의 한계가 나타났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감염되었을 시 이에 대한 사후 대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부재로 자원봉사자들의 심리적 위축과 행동적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였다.



## 2. 포스트 코로나19, 대외협력부문 글로벌 트렌드 전망

교통의 발달과 세계화로 국가 간 이동이 보다 쉽고 빨라지고 빈번해짐에 따라 코로나19의 감염과 공포도 전 세계에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는 세계화에 따른 감염병 위험과 취약성을 코로나19가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고, 이로 인해 제2, 제3의 신종 감염병 출현에 신속하게 위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과 공조 및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함을 부각시켰다.

국제교류협력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 진단키트, 공적 마스크 배부 등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인 방역 대응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우리나라 방역모델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고, 방역 우수사례 및 지원 물품에 대한 지원과 교류 요청들이 증가하고 있다.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확산과 방지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집단 행사나 모임, 대면접촉, 외출 자제 등으로 사람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원격의료, 비대면 소비 중심으로의 전환, 온라인 플랫폼 개발 및 보급 확대 등의 언택트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과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우울, 공포, 외로움, 소외, 갈등, 돌봄 공백 등 심리적 고통과 돌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더불어 국가별 국민들의 심리적 방역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다양한 이벤트와 지원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 보다 심각한 신종 감염병이 더 자주 다양한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출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다양한 분야의 주요 쟁점과 전반적인 내용들을 검토하여 신종 감염병 출현 시 신속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 차원의 위기 대응책을 구축 마련하고 있다.

### 3. 포스트 코로나19, 전북 대외협력부문 영향 예측

전라북도의 국제 교류·협력은 코로나19 확산과 겨울의 제2 유행 가능성 때문에 국가 간 입국 제한과 금지가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코로나 방역의 모범국이란 세계적 평가로 전라북도 와 우호협력관계 및 자매결연 맺은 외국 도시 간 국제 교류 증진과 협력 확대의 기회가 될 것이다. 전라북도 우수 방역정책에 대한 정보 안내와 문화 이외 보건·의료, 복지와 기후변화(환경오염)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교류 협력 확대 및 향후 국제적 다변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대면접촉 및 집합교육 중심의 사업을 실시하는 전북 도내 다문화관련 시설들도 일시적으로 휴관되어 한국어 교육 및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전면 중지되었다. 이에 한국어에 취약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은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고립과 차별 등 심리적 어려움도 함께 겪었다. 한국어에 취약하기 때문에 다국어를 통한 감염발생 정보와 정부정책 전달, 급변하는 정부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세심한 지원 등을 필요로 했으며, 다문화 기관들의 교육과 사업 및 활동에 대한 비대면 방식에서의 전환 모색, 그리고 비대면 사업 추진 시 놓치게 되는 부분들을 찾아 문제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필요로 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되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전파와 확산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중단된 집단 대면접촉의 전라북도 민간 협력·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전북지역도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및 감염 예방과 대응을 위해 각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였으나 자원봉사활동 시 필요한 방역물품 제한, 자원봉사자들의 감염에 대한 우려 및 자원봉사활동 중 감염될 경우 사후 보장 대책 미흡으로 자원봉사자의 참여와 자원봉사활동 운영에 한계가 나타났다. 향후 신종 감염병 지속 출현 예고에 따라 신종 감염병 출현 시 자원봉사활동 능력 제고를 위해 코로나19로 드러난 자원봉사 운영에 대한 전반적·근원적 차원의 내용 검토로 신종 감염병 출현 시 신속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 차원의 위기 대응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 4. 포스트 코로나19, 전북 대응방향

### 코로나19 대외협력분야 대응을 위한 기본방향

#### 국제 교류 · 협력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전 세계로부터의 관심을 전라북도 국제 교류 · 협력의 증진 및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국제 교류 · 협력 분야를 문화 이외 보건 · 의료와 방역, 복지와 빈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확대할 필요 있다. 향후 신종 감염병 지속 출현 예고에 따라 국가적 협력 대응을 위한 협력 기구 및 감염병 위기국가 지원을 위한 국제 교류 · 협력 강화도 필요하다.

####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 장기화로 대면접촉 및 집합교육 · 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도내 한국어가 취약하고 생활 적응력이 낮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대상 온라인 상 교육과 소통 및 상담 등 비대면 중심의 다양한 지원 사업 운영 마련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중요 정보를 9개 언어 등으로 전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불안, 우울과 가정 내 불화 등 심리적 방역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 민간 협력 · 교류

기존에 계획했던 대면접촉 사업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부분적으로 축소하거나 온라인을 적극 활용한 소통과 모임 및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여러 번의 소규모 활동과 각기 다른 공간을 활용 등 비대면 중심의 사업 추진 방식으로 전환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민회 연계 고향농산물 광역마케팅 판매 등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 자원봉사

신종감염병 관련 재난발생 대비 감염병 재난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및 전문교육 실시, 감염병 재난 자원봉사단 운영과 감염병 재난자원봉사 운영 매뉴얼 구축 등 구체적 · 체계적 · 전문적인 감염병 재난대비 자원봉사활동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포스트 코로나19 대외협력부문 대응 추진사업

### 중장기 대응방향

#### ① 전북형 보건·방역 정책 수출(가칭 : JB-보건방역정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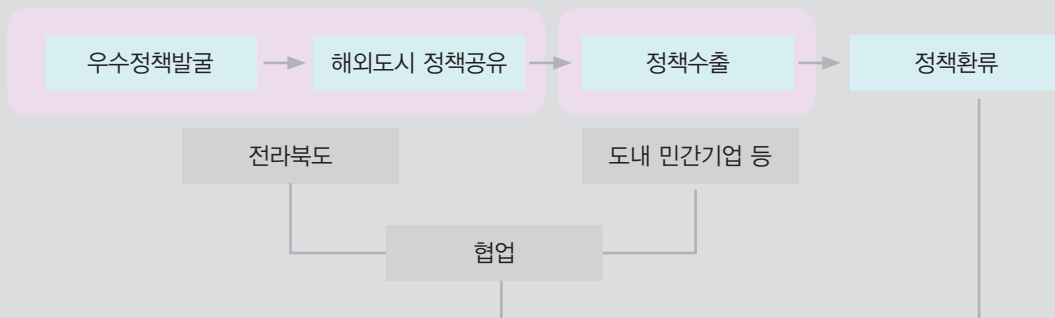
전라북도가 코로나19에 대응 해왔던 정책 및 사업 중 우수 정책과 경험을 모듈화하여 개발도상국(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대상 소개하고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 컨설팅, 기술이전, 사업 추진으로 전라북도의 국제적 위상 확립과 글로벌 상생 협력 추진이 필요하다. 전북형(JB) 보건·방역 정책 공유 및 전파를 통해 전라북도의 기관·기업·인력 등을 해외 국가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 마련과 국제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이다. 보건·방역 정책분야와 함께 전북의 다양한 우수정책과 경험까지 해외 진출시켜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제 협력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실현할 필요 있다. 정책 수출대상은 JB 방역 대응체계(코로나19 대응체계), 복지 및 보건 분야, 홍보 및 문화 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선정할 필요 있다.

#### <서울시 해외도시 정책공유 세부분야별 실적>

분야	세부분야	정책공유 사업	분야	세부분야	정책공유 사업
교통	교통카드시스템, 교통정보센터, 교통계획, 교통정책, 버스운영	31	도시계획	테크노폴리스, 지역계획, 교육	3
도시철도	시설개량, 시설설계, 자원조달, 관리운영	11	환경	하천복원, LED 가로등, 매립지개선	3
상수도	시설개량, 시설조성 및 운영,	4	소방	소방방재센터	3
전자정부	전자정부 일반, 시민참여시스템, 방재시스템, 간선행정시스템, 상권분석, 교통정책, 세무시스템	13	교육	직원역량강화	2
			콘텐츠개발	ITS가이드북, 사례집	2

자료 : 서울정책아카이브(<https://seulsolution.kr/ko/bestpolicy-introduction>) 참고하여 재정리

#### <전북형 우수 정책 수출 흐름도>



자료 : 이동기 외 (2019), 전라북도 국제화역량강화 방안, 전북연구원



## ② 전북 주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보건협력기구 창설

국가 간 이동이 쉬워지고 빈번해짐에 따라 전 세계는 감염병 확산에 매우 취약해졌다. 세계화로 감염병 발생 이후 감염병 전파가 전 세계로 보다 빠르게 확산되기에 국제간 보건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 코로나19 감염병 등 신종바이러스 감염병이 지속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향후에 국가 간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성은 더 부각될 것이며, 국가 간 보건 관련 공동의제 등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제 보건 협력기구가 필요하다. 이에 전라북도 주도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 보건 협력 기구 창설 및 운영이 필요하다 JB-방역 및 전북도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을 아시아 교류 지역과 정보 공유하고자 정책 포럼,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할 필요 있다.

### <지자체 국제기구 가입 현황>

시도	국제기구 가입현황	비고
서울	아시아대도시네트워크, 세계대도시협의회,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인간정주관리를 위한 지방정부망, 이클레이-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C40 기후리더십 그룹, 세계대중교통협회,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아·태관광협회, 세계관광도시연합회, 세계협회연합,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 유엔글로벌콤팩트, 국제사회적경제협의회, 국제도시조명연맹, 세계도시문화포럼, 열린정부파트너십, 세계지방정부건강도시협의회	18
부산	한일해협연안도시현지사회의,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회의, 세계대도시회의, 아시아태평양도시서밋트회의,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세계지방정부연합회의, 아태지역인간정주개발지방정부회의, 세계도시서밋시징포럼, 아태도시정상회의, 국제컨벤션협회,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국제도시조명연맹, GTI동북아시아지역지방협력위원회, 세계올림픽도시연합,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세계타워연맹, 세계항구도시협의회	15
광주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빛의도시국제네트워크, 세계대도시협의회, 국제교육도시연합회, 전자자매도시연합,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7
대전	세계대도시연합, 세계과학도시연합,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아태지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지역벤처마케팅포럼,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세계물위원회	10
울산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아시아태평양관광진흥기구,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한일지사회의, 한중지사성장회의, 한중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한중지방정부교류회의, 세계일프르산악관광도시협의회	14
전북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세계지방정부연합, 국제회의컨벤션협회,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4

자료: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하여 작성

## ③ 감염병 위기국가 국제개발협력(ODA) 추진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중심의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라북도의 방역물품 제공 및 인적 자원 지원이 필요하다. 전라북도는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실현과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참여하는 동시에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 내 대규모 사업 증가 등 새로운 잠재적 수요 및 개발 잠재력 확보를 위해 국제개발협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지자체 내의 민간기업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④ 전북도민회 연계 고향농산물 광역마케팅 판매행사 협력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전북도민회를 연계하여 코로나19로 쇠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우수 고향농산물에 대한 광역마케팅 판매 행사를 농산유통과(도청)와 연계하여 판매할 필요 있다. 단,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 ⑤ 감염병 등 재난 대응 자원봉사자 인력양성 및 감염병 등 재난유형별 특화전문교육 실시

환경변화 등의 영향으로 신종바이러스 감염병이 4~5년 주기로 반복해서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 전문 자원봉사자 인력 양성과 전문교육 실시가 필요하다. 시·군별 자원봉사센터에 감염병 등 재난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채용(센터별 1명)하거나 감염병과 같은 재난유형별 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을 실시 운영할 필요 있다. 또한 봉사 단체 및 담당자들에게 체계화된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⑥ 재난자원봉사단 특화 운영 및 감염병 등 재난 대응 자원봉사 매뉴얼 구축

신종 감염병에 대한 지속 출현 예고에 따라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감염병 재난 자원봉사단 특화 운영이 필요하다.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관리 운영에 따른 별도 매뉴얼 제정,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 안전조치,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 사항 적시 및 매뉴얼화 할 필요가 있다.

### ⑦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다문화 공감 JB 글로벌 365 모바일 앱 구축·운영이 필요하다.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지원과 상호 소통 및 신속한 정보 전달과 공유를 위해 일자리, 일상생활, 보건의료, 온라인교육, 센터사업, 국적별·대상별 소통방, 실시간 상담 등의 각 분야별 추진이 필요하다.

## 단기 대응방향

### ① 국제 민간 교류 및 협력 방식 다변화·다각화

국제 민간 교류 분야를 문화·교육 중심에서 보건과 의료분야까지 확대하고 다양화를 추진해야 한다. 전통공예 체험 키트 송부, 온라인 전통문화 공연(판소리, 국악연주 등) 등 교류 방식에 대한 다각화 추진도 필요하다.

### ② 비대면 디지털 전환 방식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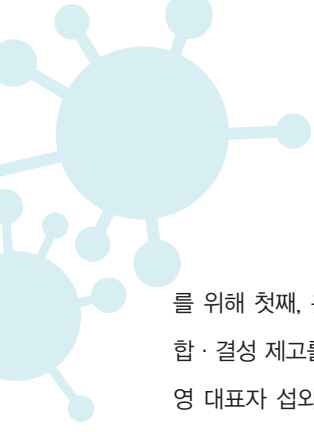
비대면 전환을 위해 행정공무원 대상 디지털 기술 안내 교육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비대면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업무 등에 대한 국내 지자체 및 해외 우수사례들을 모아 공유하고, 디지털화된 전문 업무용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종류와 특성 등에 대한 전환방식 검토, 주제별, 프로젝트별 텍스트·음성·화상(화상회의 및 화면 공유) 3개가 연결되어 업무(회의 등) 추진이 가능한 업무 전용 소통 도구들에 대한 종류와 사용의 장단점 및 이용 사례들을 안내하는 교육이 선행적으로 필요하다

예) 슬랙(slack), 행아웃(Hangout), 팀스(Teams), 워크플레이스(Workplace), 새임페이지(Samepage), 클릭(Cliq)

### ③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기반 구축

온라인 상 전북도민회 교류 활성화 제고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기반 다양한 비대면 사업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 첫째, 온라인 플랫폼(SNS 등 활용) 네트워크를 지속 유지해야 한다. 온라인 SNS(페이스북, 밴드 등)을 통해 화합·결성 제고를 위한 모임과 소통 지속, 일부 제한된 간담회 및 행사로 교감 강화, 지역별 전북도민회 온라인 플랫폼 운영 대표자 섭외 후 회원 모집, 소통을 위한 콘텐츠 제공 등으로 회원들 간 교류·소통·정보 공유 등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북도민회 온라인 고향방문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비록 몸은 멀리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언제든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대이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쇠퇴하고 있기에 지역 활력을 되살리고 고향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대책 마련으로 고향 전통시장 농특산물과 고향의 맛 집 음식 구매 시 구매비용의 일정비율 환급(예산 소진 때까지)하는 등의 다양한 사업 운영들이 필요하다.

#### ④ 감염병 자원봉사자 보장범위 확대(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및 방역 물품 지원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에 대한 신변 보장을 위해 감염병을 포함한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각종 재난 유형별 필요한 안전·방역 용품과 비상물품 적정량 구입하여 사전에 대비 마련해야 한다.

#### ⑤ 온라인 자원봉사활동 운영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로 인터넷(모바일, 컴퓨터 등 활용) 기반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완성되는 자원봉사 활동 운영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예) 전북 지역농특산물 홍보대사 모집 : 각종 SNS에 능숙한 중·고·대학생들에게 전북 지역 농특산물 소개 홍보 및 판매 안내로 전북을 사랑하는 공감대 형성

#### ⑥ 감염병 홍보 백서 제작 및 마음 돌봄 캠페인·홍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홍보 절차 및 기획, 홍보물 등을 백서로 제작하여 도민들에게 정보로 제공하고 향후 유사한 전염병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백서를 제작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도민을 위한 마음 돌봄 홍보기획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에 기여해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이나 고립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서로 연대 지원하자는 캠페인·홍보가 필요하다

예) SNS·전광판 등을 활용한 마음 돌봄 키워드 홍보, 캠페인/ SNS·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온라인 상담, 전화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 도민 일상 속 마음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있음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

#### ⑦ 다문화가족 및 외국이주민 국가별 페이스북 운영

전북도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 대상 국가별 결혼이민자 혹은 외국인주민 대상 국가별 페이스북 운영이 필요하다. 국가별 페이스북 운영으로 감염병 예방행동수칙, 정부의 새로운 정책 정보 전달 및 이해와 공감, 소통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5. 소결

### 코로나19, 국제 교류 · 협력 증진 기회

코로나19는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면서 제2의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고, 향후 몇 년은 지속될 것이라 지적한다. 방역 모범국이란 평가 하에 전라북도도 보건 · 의료 · 방역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교류 · 협력 증진을 위한 기회 확대와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신종 감염병 지속 출현 예고에 전라북도가 주체가 되어 보건 · 의료,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교류 · 협력 분야를 확대하여 외국 도시간 국제적 공동 협력 방안 마련과 더불어 코로나19가 가려워 국제적 다변화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 신종 감염병 지속 출현에 대한 대비 필요

코로나19가 전북 도민의 삶과 생활에 미친 영향과 어려움이 크고 코로나19 사태로 과거 일상으로의 복귀 또한 어렵다. 이에 코로나19와 더불어 생활해 내는 일상들을 만들어야 하고 더 잦은 빈도로 찾아오는 강한 신종 감염병 출현 예고에 완벽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온라인교육,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부분적 배달지원 서비스, 화상회의 등 실험적인 비대면 지원 서비스가 일상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어가 취약한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 가족을 위해 다국어로의 신속 정보 전달과 현장의 목소리 반영과 모니터링으로 지원사업과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종 감염병 출현 시 전북 각 지역과 분야별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 운영을 위해 감염예방을 위한 현장대응 매뉴얼 개발, 신종 감염병 특화 자원봉사 교육과 양성, 자원봉사자의 상해보상 체계 강화 등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